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 (제 69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음녀 바벨론' 예레미야

◎간증 '신약 원전에 관한 진실'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음녀 바벨론' 예레미야

이번에는 "음녀 바벨론"으로써 이번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은 오래된 옛날에 멸망 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종말의 날에 다시 바빌론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종말의 날에 등장하는 바빌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 이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결론을 말하는 것도 무엇이지만,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 교회야말로 종말의 날 바빌론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우선 그러한 전제에서 이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바빌론은 혼란을 의미한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바빌론은 바벨 (혼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미국의 기독교는 바로 혼란입니다. 모든 성경과 동떨어진 교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영도 혼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난 전에 휴거 설 등은 성경에서 동떨어진 이상한 교리이지만, 그러나 이 혼란 한 이상한 교리는 미국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바벨론 포로의 의미>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성경적 큰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나라가 이 나라 바벨론에 포로 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36: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36: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36:20**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인 유다 왕 또한 성전의 귀한기구도 모두 바벨론에 사라져 적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것은 상징적이며 예언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도 모두 바벨론 미국의 교리에 석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릇 그리스도인이 미국 유래의 혼란 한 영혼에 영향을 때문입니다.

### <약속의 땅에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의 가장 큰 의미 그것은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옮겨 버리는 또 돌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믿음의 조상 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에 비유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된 천국을 비유 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다름 아닌 하늘의 수도 들어가야 나라를 빙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 난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벨론에 현혹되어 그 교리 나 영으로 미혹하는자는 믿음의 약속의 땅 곧 하늘 나라에서 철수 버리는 것이 암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한다면, 미국, 바벨론의 교리 영에 현혹되는 사람은 하늘 나라가 위험한 것입니다.



펜사콜라 악령 리바이벌 :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

<미국의 교리는 바벨론의 교리>

미국의 교리는 바벨론의 교리이며, 이 교리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조상의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러한 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 예를 들어 "기독교와 이름이 붙으면 누구나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교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 사이에 구분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서는 하늘 나라에 관련하여 보리와 가라지와의 구분을 말합니다. 보리 빵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에 좋은 밭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모아 불에 구워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고는 하늘 나라의 비유겠지만, 불에 구워지는 것은 멸망의 불 비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독교도 2 종류의 운명이 기다리고 제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불에 구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마태 13 장 나쁜 물고기가 모아지고 불에 구워지는 것, 또한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딸이 밖으로 쫓겨나도 같은 그리스도인도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름이 붙으면 누구도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교리가 어떻게 성경과 동떨어진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바빌론의 음행의 포도주>

계시록은 바빌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다음과 성찬식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 즉 성령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준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 한 것입니다 만, 음녀 바벨론 가진 포도주는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안되는 영혼 귀신의 포도주입니다. 악령의 부흥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한 사람"**

이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 이외의 영의 포도주를 마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베니 힌 등의 미국의 이상한 부흥의 영이 전 세계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은 바빌론의 징후>

미국과 바빌론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미국은 바빌론의 증상이나 표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미국의 자유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바빌론의 여신 이시스를 상징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는 숨겨진 바빌론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 <바빌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다>

바벨론의 포도주, 즉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부흥을 받아 들인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받아 지옥 불에 시달리게됩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 또는 손 또는 각인을 받게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통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빌론의 "음행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으로,이 양자가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짐승을 타고 음녀 바빌론>

또한 이 바벨론 짐승을 탈 수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이전 보았듯이 국가로서의 미국입니다.

여자는 바빌론이며, 미국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인마 일체처럼 뿔래야 뿔 수없는 관계임을 이 기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가는 곳으로 여자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회는 바로 짐승 인 미국의 국가에 데려 돌려져 영향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라크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등 근거없는 거짓말로 선동하면 곧 그 마음에,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살인"과 가르침 등지고 이라크 공격에 찬성하거나 하고있는 것입니다.

### <바빌론에서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바빌론을 기점으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이 여자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있는"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바빌론 미국의 기독교 교회를 기점으로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날 조짐은 벌써 미국의 기독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복음 토라쿠토을 배부 기독교인이 체포되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기독교도입니다. 그래서 중 이러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피가 흘러 날이 올 것입니다.

### <바빌론은 하루에 멸망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려 귀신의 부흥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바빌론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따라서 바빌론이 하루 사이에 멸망 날이 온다. 다음에 쓰여있는대로 입니다.

**요한복음 18: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구체적으로는 그 날, 미국의 국가가 하루 아침에 멸망 아마도 핵 공격으로 망하게 마라

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격은 아마도 9.11 과 같이 해줘서 테러이며,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미리 지하 기지, 지하 방공호에 도망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핵 불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성경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경고하고 그 망할 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언급 된 교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이단 교리이며, 그 부흥의 영은 음행의 포도주이며, 귀신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러한 악령의 포도주를 전 세계의 교회에 펼쳐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시에 대해 진노는 이 나라의 교회에 쌓이고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이 나라의 교회는 하루, 아니오 1 시간 동안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걸음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반대하고 체포되는 기독교 :**

**바빌론에서 순교가 발생**

### **‘신약 원전에 관한 진실’ E3**

작년 (2015 년) 10 월에 토요일 제자의 행보 집회에서 "신약 성경의 원전"에 관해서 예레미야 목사가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많은 그리스도인 알고 싶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구나 ...라고 생각 했으므로, 이번에 소개 드릴 수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가라지"이 들어오는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 적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때 모든 공격과 적의 침입이 허용됩니다. 이번에는 들어간 가라지 "신약 원전에 관한 진실"에 대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원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자.

신약 성경의 원전은 "그리스"이며 2000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마태이나 마르코가 실제로 육필로 쓴 것, 즉 원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것을 "사본"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많은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는 대략 5300 정도입니다. 다른 플라톤의 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가 남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 신약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그것은 사본의 수에서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 틈을 걸쳐 충실하게 書き写さ 되어 보관되어 왔습니다.

5300 중 95 ~ 97 %의 사본의 내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 ~ 5 %는 중간에 빠지거나,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나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이 건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본의 수는 압도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정확한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치하는 다수의 사본을 "Majority text"라고 말합니다.

16 세기 종교 개혁 시절에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학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Majority text"(95 ~ 97 %의 사본)을 바탕으로 한 권의 그리스어 성경 (신약) "Textus Receptus" "인증 된 원전 '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옳다는 기본이 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본이 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KJV"는 "Textus Receptus" 충실한 영어 번역입니다. 일명 "AV"(authorized version) "권위있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KJV 이야말로 올바른 영어 성경이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 세기 경부터 그리스어 원전에 대해 사기가 들어 오게되었습니다. 영국 웨스트 코트 (Westcott) & 호트 (Hort)라는 나쁜 두 명의 학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거짓이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위와 같이 잘못 사용되어왔다 "Textus Receptus"을 분리하고 오류가 많은 그리스어 사본을 사용하여 그리스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19 세기와 20 세기에 이집트에서 발견 된 초기 그리스어 사본 (특히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 그 중에서도 바티칸 사본)에 크게 의존하고 새로 그리스어 원전 작성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많은 사본을 사용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오래된 사본이라는 이유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필이면 할 정도로 실수가 많은 사본입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은지? 그 예로서 복음만으로도 바티칸 사본은 에라스무스의 신약 본문 "Textus Receptus"에 비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 바티칸 사본은 적어도 2877 단어를 삭제하고 있다.

■ 536 단어를 덧붙였다.

■ 935 단어를 대체하고 있다.

■ 2098 단어를 전치하고 있다.

■ 그리고 1132 단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578 단어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나이 사본은 그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이 사본의 이탈의 합계는 9000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실수가있는 사본들이 두 사람은 대대적으로 이용하여 가장 올바른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수의 사본이 배제되고, 실수가 많은 사본이 의식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궤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전부터 옳다."고. 게다가 "5000"Majority text "사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 담합이 있고, '이렇게하자!'라고 결정 했으니 까."라고 궤변을 사용하여 배제한 거입니다. 이처럼 사기 두꺼비 빌려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성경 (ASV, RSV, NASV, NIV 등)의 대부분은 위 웨스트 코트 (Westcott) & 호트 (Hort)의 실수 투성이의 사본이 기초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많은 성경이되고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현행 성경도 모두 위 실수투성이의 사본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읽어도 원래 버전이 이상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올바른 그리스어 원전이 실수로 되어 거짓이 활개를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알고 싶은 생각합니다. 바티칸 사본은 복음만으로도 많은 단어와 구절을 삭제합니다. 즉 빠져 투성이, 실수 투성이의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사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한 사본입니다. 단어를 정리했지만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문자와 단어,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도 두 번 반복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쓰기 시작하자마자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요컨대 열등생 노트처럼 제대로 투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사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원래 텍스트입니다.

또한 웨스트 코트 (Westcott) & 호트 (Hort)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술"을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영혼에 끌려 사기를 넣어왔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 번역은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길을 잘못 했는가? 올바른 곳으로 돌아 싶습니다. 즉 19 세기까지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올바른 그리스어가 반영 된 영어 성경은 "KJV 성경"이므로, 거기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올바른 성경 번역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공격이 강한 것을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중요한 것은? 생각했고, 수궁하거나 설득 할 것이있었습니다. 모처럼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제대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이해하지 싶다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 수많은 모든 성경이 있다고는 생각 합니다만, 만약 괜찮다면 이런 것도 명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으므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일본어로 "새로운 계약 성경"이라는 것이, KJV 역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음 소개 둡니다.



제작사 : 일본 나사렛 교단 / 치바 기독교의 / 기독교 문서 선교 협회 발행 "Textus Receptus"  
"인증 된 원전 '을 만든 에라스무스